

야누스로서의 시편 91편: 모세의 시인가 다윗의 시인가

변경욱(평택대)

1. 들어가는 말

91편의 표제는 MT, 사해사본, 탈군에는 없으나, LXX에는 ‘다윗의 찬양 시’로 존재한다.¹ ‘피난처(시 91:2, 9)’, ‘요새(시 91:2)’ 등 91편의 내용 요소는 다윗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앞 90편의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이는 시편 전체에서 ‘모세’를 포함하는 유일한 표제로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² 91편 표제에 관해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윌슨(Gerald H. Wilson)은 91편이 앞선

1 MT에서 1, 2, 10, 33, 43, 71, 91, 93, 94, 95, 96, 97, 99, 104, 105, 106, 107,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35, 136, 137, 146, 147, 148, 149, 150편은 표제가 없다.

2 이 표제는 MT와 LXX에서 공통으로 존재하지만, 사해사본에는 없다. MT의 시편 90:1-150:6은 LXX에서 89:1-150:16의 범위이다. 두 사본 모두 ‘모세’에 관한 표제를 포함하지만, MT의 경우 90:1-17까지로 구분되고, LXX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A Prayer of Moses the man of God)’ 표제는 89편(89:1)에 포함되어 89:17까지 한 단위를 이룬다.

90편의 표제인 ‘모세의 기도’와 어느 정도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³ 시편 제4권(90-106)은 89편에서 제기된 다윗 언약의 효력에 대한 의문(1-3 권)에 대한 대답으로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일련의 표제도 누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⁴ 반면, 대표적으로 LXX는 표제를 통해 91편을 ‘다윗의 시’로 본다.⁵ LXX 90:1(MT 91:1)에서 ‘다윗에 의한 찬송(Praise of a Song, by David)’ 표제가 더해져서 90:16까지 이어지고, 다음으로 92편인 안식일을 위한 시편(A Psalm or Song for the sabbath day)의 표제가 나타난다.⁶ 마지막으로, 제3의 해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⁷

기존의 연구들은 4권에 속하는 시편 90-91편이 앞선 3권의 마지막 88-89편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⁸ 대표적으

-
- 3 G.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81), 215.
 - 4 월슨은 표제가 없는 시편이 제4권에서 높은 비율(17편 중 13편)로 나타나는 이유를 편집 작업(editorial manipulation)에 영향받은 것으로 본다.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214-215.
 - 5 표제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쟁의 영역이다. 시편 표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구약논단』 16.2 (2010), 92-115; 방정열, “시편 표제어 유무(有無)에 대한 정경적 해석의 가능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11-37; B. S. Child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SS* 16 (1971), 137; E. Slomovic,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itles in the Book of Psalms,” *ZAW* 3 (1979), 350-352; R. T. Beckwith, “The Early History of the Psalter,” *TB* 46 (1995), 1-27; George R. Berry, “The Titles of the Psalm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33 (3) (1914), 198-200; Elieser Slomovic,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itles in the Book of Psalm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1 (3) (1979), 350.
 - 6 이는 LXX(91:1-16)와 MT(92:1-16)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LXX 90:1(MT 91:1)의 표제는 단지 후대에 추가된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MT를 검토한 당시의 유대인 전통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7 후술하겠지만 91편 장르에 대한 의견이 학자들 간에도 일치되지 않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8 L. D. Nancy,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Psalm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4), 강대이 역, 『(NICOT)시편』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829;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215; 월포드(deClaisse-Walford)도 시편 1편과 시편 90편의 관계를 비교하여 시편 89편에 대한 응

로 윌슨은 MT 시편 91편의 표제 누락을 편집자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1-3권과 4-5권을 내용의 문제 제기-해결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하였지만, 91편이 90편에서 이어진 모세의 시인지 아니면 LXX의 표제에 해당하는 다윗의 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⁹ 또한, 이러한 접근에서 윌슨은 4-5권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다윗 시의 흔적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진규는 시편 89편과 이어지는 4, 5권을 다윗 언약 성취를 위한 전략적 관계로 재해석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한다.¹⁰ 그러나 제왕시들(시 110, 132, 144편)의 맥락 속에서 다윗 언약에 중점을 둔 해석은 하였으나, 90편 모세의 시의 표제 의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브뤼그덴힐(Gerrit C. Vreugdenhil)은 시편 91편에서 나타나는 퇴마를 위한 위협적인 이미지와 어휘들을 중심으로 연구했으나, 표제와 앞선 90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¹¹ 방정열은 시편의 표제어와 내용의 해석 간의 긴밀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90편의 표제 ‘모세’는 최종 편집자의 의도가 담긴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어지는 91편과의 맥락은 점검하지 않았다.¹² 또한 91편 표제의 누락과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른 다른 연구 또한 없다.¹³

답으로 4권 90-106편이 대담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하지만, 90편과 91편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어 있다(deClaisse-Walford,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82).

9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214-215.

10 김진규는 제왕시의 하위 분류로써 시편 90, 91을 포함시켰다.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83-110.

11 Gerrit C. Vreugdenhil, *Psalms 91 and Demonic Menace* (Boston: Brill, 2020).

12 방정열, "시편 표제어 유무(有無)에 대한 정경적 해석의 가능성," 11-37.

13 김형준(Hyung Jun Kim)은 89편과의 관계에 대하여 애가에 대한 대답으로 90-91편이 위치한다고 보았다(Hyung Jun Kim, "A study of Psalm 90" (Th.M.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Africa, 1998); 시편 91편의 장르, 음악 등 요소 등에 관한 논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Gerrit C. Vreugdenhil, "Context and Genre of Psalm 91," *Psalms 91 and Demonic*

91편 장르에 대해서 신뢰시¹⁴, 왕의 시¹⁵ 등 다양하게 접근하지만, 단 하나의 장르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알터(Robert Alter)는 91편에 해당하는 명확한 장르가 없다고 본다.¹⁶ 이렇듯 91편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뿐 아니라 특정 장르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기에 난해한 면이 있다.¹⁷ 플러머(William S. Plumer)는 시편 91편의 장르에 관해 모세, 다윗, 메시아, 제왕시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결론을 열어두고 있다.¹⁸ 이러한 관점은 시편 91편에 대한 제3의 해석 가능성을 높인다.

시편 표제와 본문 간의 관계에 대해 상이한 입장이 있다. 표제와

Menace (Brill, 2020), 175-207, Jennifer E. Brown and Joanna Collicutt, "Psalms 90, 91 and 92 as a means of coping with trauma and adversity,"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25.3 (2022), 276-287;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보호하는 기도로 사용된 91편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Philip Jenkins, *He Will Save You from the Deadly Pestilence: The Many Lives of Psalm 9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데니스 터커(W. Dennis Tucker)는 91편을 이스라엘 종교사 내의 다양한 맥락과 내적 종교 다원주의 모델로 접근하기도 했다. W. Dennis Tucker, "Revisiting Psalm 91 in Light of Rainer Albertz's Model of Internal Religious Pluralism," *JBL* 143 (2024), 643-661.

- 14 Artur Weiser, trans. H. Hartwell, *The Psalm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1962), 604-605; A. F. Kirkpatrick, *The Book of Psal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6), 553-554.
- 15 Mitchell Dahood, *The anchor bible Psalms II* (New York: Dell Publishing Group, 1968), 329.
- 16 Robert Alter, *The book of Psalm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London: WW Norton & Company, 2007), 321.
- 17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은 그의 책에서 91편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Claus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Atlanta, Ga.: J. Knox Press, 1981), 293. 다음 책에서도 지혜시, 왕조시 등 13개의 장르를 구분하지만 91편은 언급하지 않는다. 90편은 공동체 애가(community laments)로 분류한다. Claus Westermann, *The Psalms: Structure, Content and Message*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0), 119; 궁켈도 개인 탄원시(시 91: 14-16), 축복과 저주시, 예언적 내용 부분 등으로 언급하며 정확히 91편을 분류하지 않는다. Gunkel, Hermann, James Muilenburg, and Thomas M Horner, *The Psalms: A Form-Critical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125, 222, 253.
- 18 William S. Plumer, *Studies in the Book of Psalms: Being a Cri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With Doctrinal and Practical Remarks on the Entire Psalter* (Philadelphia: J.B. Lippincott, 1867), 847-855.

본문 내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있었다.¹⁹ 반대로 최근에는 그 관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²⁰ 본고는 표제와 본문간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어떠한 표제라 하더라도 해당 시편 내용을 배제하기 어렵고 본문의 기초 단위인 어휘와 주제를 기반으로 표제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표제 삽입과 누락은 의도적이어야 한다. 또한, 표제의 내용은 시편 편집자나 정경 공동체의 내용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표제의 직접적인 삽입이나 누락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 시편의 정경적 위치에 대한 의도가 있음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시편 91편의 특성상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으나, 본고는 대표적으로 MT와 LXX의 표제에서 제시된 ‘모세’와 ‘다윗’ 모티프를 기준으로 접근한다.²¹ 서론 1장과 결론 4장을 제외하고, 2장에는 본문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91편에 대한 3가지 해석 가능성을 놓고 고찰한다. 즉, 시편 91편이 첫째로 90편에 이어지는 모세의 시인지, 둘째로 다윗의 시인지, 아니면, 셋째인 제3의 가능성으로 야누스 평행 대구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본고는 시편 편집자가 독자 공동체의 기억을 전제로, 91편이 모세와 다윗의 관점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해

19 대표적으로 존 칼빈(John Calvin)은 시편 표제에 중점을 두지 않지만, 가령 90편의 표제 ‘모세의 시’를 인정한다. John Calvin, 『성경주석』 vol.5, 신약복 외 2 감수 (서울: 성서원, 1999), 64.

20 대표적으로 차일즈(Brevard Childs)는 시편해석에 표제어를 고려해야한다고 보았다. Brevard Child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137-150; 손세훈은 시편 내 표제어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유의미한 내용임을 밝혔다. 다만, 91편과 같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하지 않는다.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92-115; 방정열, “시편 표제어 유무(有無)에 대한 정경적 해석의 가능성,” 11-37.

21 이는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과의 관계와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시편 내에 다윗 언약과 시내산 언약(모세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 논문은 있다. 가령, ‘신명기적 역사서(Deuteronomistic history)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다. 강정주, “시편 132편과 다윗 언약,” 『개신논집』 6 (2006), 63-91.

석될 수 있도록 확대된 ‘야누스 평행대구’의 원리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야누스 평행 대구는 문학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해석한 방식으로 고든(C. H. Gordon)이 처음 발견하여 이름 붙였다. 유운중은 야누스 평행 대구를 소개하고 한글 번역의 가능성을 소개한 바 있다.²² 고든은 야누스 평행 대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고대 근동 문학 작품에서 평행구조는 매우 미묘하여 지난 수세기 동안의 집중적인 구약성서에 대한 분석에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 어떤 평행구조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의미와 붙어 있어서 하나의 의미는 선행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뒤 따르는 것과 평행한다. 이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예술 기교로 매우 독창적인 방식이다.²³

이의 대표적인 예는 아가서 2:12이다. ‘자미르(רִמְיִם)’는 첫째 ‘전지(pruning)’와 둘째 ‘음악(노래)’이라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앞 행의 ‘땅(עֵרֶס/עֵרֶס)’과 연결되면 ‘전지’의 의미를 가지고, 뒤의 행인 비둘기의 ‘소리(קוֹל/קוֹל)’와의 연결에서는 ‘노래’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²⁴

야누스의 평행대구법에서 의미론적인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적 의미를 갖는 중심축 어휘(pivotal word)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 중심축 어휘를 중심으로 앞뒤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존

22 야누스 평행대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와 예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다음을 참고하라. 유운중,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의 문학적 역동성과 한글 번역,” 『Canon&Culture』 12.2 (2018), 77-104.

23 C. H. Gordon, “New Directions,” *The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of Papyrologists* 15 (1978), 59-60.

24 C. H. Gordon, “New Directions,” 59-60.

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론적 원리를 확대하면 단어 수준이 아닌 장 단위에서도 편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든의 야누스 평행 대구는 통사적인 기본 단위인 ‘단어’로 구성되지만, 본고는 이를 의미론적으로 확장하여 91편에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 원리가 시편 91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두 가지 원리이다.²⁵ 첫째, 이중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장 단위가 있어야 한다.²⁶ 둘째, 이 장을 중심축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주제의 의미가 앞뒤로 성립해야 한다. 만약 이 원리가 91편에 적용된다면 편집자는 시편 91편에 확대된 야누스의 평행대구 원리를 적용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고는 최종 완성된 정경을 기초로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정경 비평 방법을 사용한다. 주요한 단어를 선별하기 위해서 문학적 방법론인 평행법과 카이아즘 구조를 활용한다.²⁷ 이 글은 본문에 대하여 공시적으로 접근하며 통사적인 방식의 접근은 최소화한다.²⁸ 본문의 의미를 중심으로 91편의 적절한 표제를 고찰하기 위해 MT를 기반으로 연구한다.²⁹

25 기존 야누스 평행대구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26 성경의 많은 장은 어휘, 문장, 평행법 등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가 동시에 흐르는 측면이 있기에, 앞뒤로 이어지는 주제와 표제의 유무는 확장된 야누스의 평행 대구의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7 본문은 MT를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한글성경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한다. LXX는 표제의 내용만을 참고한다.

28 시편 91편의 편집 순서에 관하여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고 다 다를 수도 없다.

29 표제와 관련하여 LXX, 탈군역을 활용한다.

2. 본문 분석

1) 모세와 다윗 모티프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연속된 이야기로 파악하여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³⁰ 같은 방법론으로 다윗과 관련된 성경 내용을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³¹ 클린(Joanna G. Kline)은 서사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두 이야기(창세기 25-50과 사무엘상 16장-열왕기 2장)를 비교하였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서사구조, 주제와 모티프를 다루고 단어나 구절(왕, 언약 등)을 중심으로 그 유사성을 검토하였다.³² 모세 모티프와 다윗 모티프는 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형성된다.³³

시편 91편 내에서 모세와 다윗 모티프의 흔적을 추출하는 과정은 운문 문학 장르의 특성상 주로 어휘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어휘적 접근에 있어서 그 단어를 선정하는 방식은 구절 내에서 중요한 내용이 드러나는 문학적 분석법인 평행법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한

30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2), 241-322.

31 Robert Alter,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0); Joanna G. Kline, *Narrative Analogy in the David Story: Parallels between Genesis 25-50 and 1 Samuel 16-1 Kings 2* (Tübingen: Mohr Siebeck, 2024). 이사야, “사울-다윗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영과 영성,”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16 (2010), 226-249; 유윤중, “이새의 아들인가? 사울의 아들인가?: 사울과 다윗의 갈등 내러티브 (삼상 16-26장)에서 본 사무엘상 17장 55-58절,” 구약논단 29, no. 1 (2023), 152-183.

32 Kline, *Narrative Analogy in the David Story: Parallels between Genesis 25-50 and 1 Samuel 16-1 Kings 2*, 223-252.

33 본고에서는 모세 모티프와 다윗 모티프를 각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한다.

다.³⁴ 먼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나누어 분석한다.³⁵ 본고는 91편 전체 구조와 각 구절별 카이아즘 구조에서 대조/대응이나 중심 위치(X)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들을 91편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2) 91편의 거시적인 카이아즘 구조

A 여호와가 제공하는 안전(1-2)
 B 위협으로부터 보호함(3-8)
 X 안전의 근원은 여호와(9-10)
 B' 위협으로부터 보호함(11-13)
 A'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함(14-16)

평행법으로 전체 구조와 개별 구절로 접근할 때 중심 소재와 어휘들을 도출하여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91편은 평행법의 카이아즘 구조로 A-B-X-B'-A'로 구성된다. 중심 소재는 안전을 제공하는 여호와/엘론이다.

A-A'는 여호와가 주는 안전에 관한 내용이다. A에 해당하는 91:1은 완전한 안전의 제공자가 지존자(엘론/יְהוָה), 전능자(샤다이/יְהוָה)임을 대구로 강조하며 카이아즘 구조로 나타낸다. 1절 안에서, '거주하는 자(요세브/יָשֵׁב)'는 '사는 자(이트로난/יְתָרוֹן)'와 대응하고, '지존자의 은

34 Moshe Weinfeld, "בְּרִית," eds.,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Heinz-Josef Fabry, and John T. Willi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2*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4), 253. 유대인들에게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구분 지점으로 이와 관련된 인물과 사건들은 신학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구약성경에서 언약이란 'בְּרִית'(브리트)'로 구약에서 약 287회 사용되는 용어이다.

35 의미론적 평행법 외에 시의 중요한 요소인 운율, 음운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지면의 한계상 이후의 추가 연구로 남겨 둔다.

밀한 곳(베세테르 엘론/עֲלֵיוֹן בְּסִתְרָא)도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베첼 샤다이/שְׁדֵי בְּצֵל)’와 평행을 이룬다. A’에는 여호와와의 구원의 보장이 14절의 ‘건지리라(팔라프/פִּלְאֵפ)’, 높이리라(싸가브/שָׁגַב)’로, 15절의 ‘건지고(할라쯔/חֲלֹץ)’³⁶, 16절의 ‘구원(예슈아/יְשׁוּעָה)’을 통해서 나타난다.

B-B’는 청자를 위협에서 보호하는 내용이다. B(91:3-8)의 위협에 관한 표현은 올무(파흐/פַּח), 전염병(테베르/תֵּבֵר), 공포(파하드/פַּחַד), 화살(헤쯔/זֶהַר), 재앙(계떼브/קִטְוָב)이며, 보호에 관한 표현은 그의 깃(케나파우/כַּנְפָּיו), 날개(에브라/עֲבָרָה), 방패(쩨나/צִנָּה), 손방패(쏘헤라/סֹחֲרָה)이다. 5-6절은 메리즘(merismus)를 사용하여 모든 시공간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강조한다.³⁶ B’(91:11-13)에는 위협에 관해 돌(אַבֵּן), 사자(כִּפִּיר), 뱀(תַּנִּין)으로 표현하고, 천사(말라크/מַלְאָךְ)와 그들의 손(카프/כַּף)으로 보호한다.

가장 중심에 위치한 X(9-10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יהוה), 지존자(עֲלֵיוֹן)’이다. 카이아즘의 구조의 중심에 지존자(엘론/עֲלֵיוֹן)-전능자(샤다이/שְׁדֵי)가 위치하여(9절), 재앙으로부터 보호됨의 근원임(10절)을 나타낸다. 이를 9절의 피난처(מְחֻסָּה), 거쳐(מְעוֹן), 10절의 장막(אֹהֶל)으로 시각화한다.

위 단어들은 91편을 거시적으로 살펴 볼 때 나타난 주요 어휘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미시적인 구절 안에서도 평행법과 카이아즘 구조 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확인한다.

3) 미시적 주요 구절의 평행법을 통한 단어의 선별

미시적인 구절 내 주요 단어도 크게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추출한다. 첫째는 카이아즘 구조의 중심(X)에 위치한 어휘이다. 둘째는 평행법

36 Patrick D. Miller, Jr, *Interpreting the psalm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40.

으로 대응이 나타난 어휘이다. 그리고 선별된 어휘들 중 모세 모티프나 다윗 모티프와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91:2

אֱלֹהֵי אֲבֹתָהֶם	וּמְצִדָּתִי	מִחֹסִי	אֲמַר לַיהוָה
A'	B'	B	A

91:2의 A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오마르 라야웨/אֲמַר לַיהוָה)’이고 이에 대응하는 A’는 ‘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이다.³⁷ B의 나의 피난처(마호씨/מִחֹסִי)와 B’의 ‘나의 요새(베쭈다티/וּמְצִדָּתִי)’는 1인칭 단수 소유격 접미어로 대응하며 의미적인 동의어를 만들며 평행법에서 91:2의 중요한 단어가 된다.

(2) 91:4

אֲמִתּוֹ	צָנָה וְסַחֲרָה	תְּחֹסָה	וּתְתַחַת־כַּנְפָּיו	וְיֹסֵף לָךְ	בְּאַבְרָתּוֹ
A'	B'	C'	C	B	A

91:4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깃(에브라/אַבְרָה)과 그의 날개(케나파 우/כַּנְפָּיו)이며 이를 통해 완전한 보호를 표현한다.³⁸ 보호를 나타내는 비유 언어는 ‘방패(찢나/צָנָה)’와 ‘손방패(쏘헤라/סַחֲרָה)’이다. 4절의 카이아 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그의 깃(베에브라토/בְּאַבְרָתּוֹ)은 A’의 그의 진 실향(아미토/אֲמִתּוֹ)과 3인칭 소유격으로 대응을 이루며, ‘펼쳐서 보호한

37 신명의 관점에서 ‘야웨’와 ‘엘로하히’가 대구를 이룬다.

38 J. David Pleins, *The Psalms: Songs of Tragedy, Hope, and Justi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93), 94.

다’는 점에서 B 너를 덮으시리니(야세크 라크/לְךָ יִסְרֶךְ)는 B’ 방패와 손방패(짚나 베쓰헤라/וְצִנָּה וְסִחָרָה)와 의미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중심 C의 그의 날개 아래에(베타하트 케나파우/וְתַחַת־כַּנְפָיו)는 C’ 너가 피하리라(테호쎄/תִּחָסֶה)와 의미적인 대응을 이룬다.

(3) 91:5

מִחֵץ יְעוֹף יוֹמָם	(생략)	מִפָּחַד לַיְלָה	לֹא־תִירָא
B’	(A’)	B	A

5절의 평행법은 A-B-(A’)-B’로 구성된다. A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로티라/לֹא־תִירָא)’에 이어서 B ‘밤의 두려움으로부터(미파하드 라일라/מִפָּחַד לַיְלָה)’로 연결된다. A’는 생략되지만 의미상 A가 반복된다. B’의 ‘낮의 날아다니는 화살로부터(메헤쯔 아우프 요맘/מִחֵץ יְעוֹף יוֹמָם)’는 앞선 B와 대응하여 공포라는 의미 면에서 반복된다. 5절에서 두려움(파하드/פָּחַד)과 화살(헤쯔/חֵץ)은 내용상 중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4) 91:9

עֲלִיּוֹן שְׁמֵת מְעוֹנֵךְ	כִּי־אָתָּה יְהוָה מֹחֲסִי
A’	A

신명의 측면에서 A의 여호와(야웨/יְהוָה)는 A’의 지존자(엘론/עֲלִיּוֹן)와 동의어로 병렬한다. 9절에서는 평행법으로 A-A’로 A의 ‘피난처(마호쎄/מֹחֲסֶה)’와 A’의 거처(마온/מְעוֹן)가 대조되어 전체 중심 주제인 ‘여호와가 피난처의 제공자’라는 점을 중심에서 드러낸다.

(5) 91:10

לֹא־יִקְרַב בְּאַהֲלֶיךָ	וַיִּנְנֶ֑ע	רָעָה	לֹא־תִחַנְּנָה אֵלֶיךָ
A'	B'	B	A

이 구절의 카이아즘 구조는 A-B-B'-A'이다. A 네게 미치지 못하며(로 테우네/לֹא־תִחַנְּנָה)는 A'의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로 이케라브 베오홀레카/רָעָה/לֹא־יִקְרַב בְּאַהֲלֶיךָ)'로 의미상 평행을 이룬다. 중심에는 B의 '화(라아/רָעָה)'와 B'의 '재앙(네가/וַיִּנְנֶ֑ע)'이 반복되면서 '화'와 '재앙'이 강조된다. A-A'의 보호를 위한 표현인 '장막(오הל/אַהֲלֶיךָ)'도 중요한 단어로 나타난다(시 27:5).

(6) 91:13

עַל־שֹׁחַל וּפְתָן	תְּרִמֹּס	תְּדַרְךָ	כְּפִיר וְתַנִּין
A	B'	B	A'

이 구절의 카이아즘 구조는 A-B-B'-A'이다. 두 가지 동사 '네가 밟으며(티테로크/תְּדַרְךָ)'와 '발로 누르리로다(티레모쓰/תְּרִמֹּס)'가 중심 B-B'를 이루면서 방어에서 대적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장면을 그린다. 주어는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로 이 주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기에 난해한 구절이다.³⁹ 밟히는 대상은 A의 사자(샤할/שֹׁחַל)와 독사(페텐/פְּתָן)이고, 짓밟히는 대상은 A'의 젊은 사자(케피르/כְּפִיר)와 뱀(탄닌/תַּנִּין)이다.

39 이후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를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한다.

4) 주요 단어의 선별 결과

91편의 거시적인 전체 구조와 미시적 개별 구절을 평행법과 카이아즘 구조, 다윗과 모세 모티프와의 관련성으로 정리한 주요 어휘는 다음과 같다.

- 모세 관련: ‘은밀한 곳(셰테르/סִתְרָה)’, ‘깃, 날개(에브라/אֲבָרָה)’,
‘장막(오헬/אוֹהֶל)’, ‘뱀(탄닌/תַּנִּין)’
- 다윗 관련: ‘피난처(마흐세/מַחֲסֵה)’, ‘요새(메쭈다/מְצוּדָה)’,
‘방패(짚나/צַנָּה)’, ‘화살(헤쯔/חֵץ)’, ‘거처(마온/מְעוֹן)’

이제 위 단어들이 모세와 다윗 중 어디에 관련된 어휘인지 각각 고찰해보도록 한다. 만약 위 단어들 가운데 양가적인 의미의 어휘⁴⁰가 다수 포함되어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원리를 충족한다면 91편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확대된 의미론적 야누스의 평행대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시편 91편 고찰

1) 모세의 관점에서

시편 91편이 모세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⁴¹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은밀

40 야누스의 평행대구에서 흔히 이러한 양가적 의미를 가진 경우를 ‘pivot pattern(중심축 패턴)’이라고 부르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중심축 어휘(pivotal word)’라고 부르기로 한다.

41 대표적인 모세의 시인 시편 90편과 모세와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신명기와 연관시켜 보는 것은 타당하다. deClaisé-Walford,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82-88.

한 곳(쉴테르/שֵׁטֶר), ‘깃, 날개(에브라/אֵבְרָא), ‘장막(오헬, אֹהֶל), ‘뱀(탄닌, תַּנִּין)’ 용어들은 시편 91편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포로기-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와 아웨의 강력한 힘과 보호에 대한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단어들은 시편 1-3권의 다윗 언약의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4권의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소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1) 은밀한 곳(쉴테르/שֵׁטֶר)

피난처(시 91:2)와 유사한 표현은 1절의 ‘은밀한 곳(쉴테르)’이다. ‘쉴테르’는 신명기에서 10회 등장할 정도로 모세와 관련되지만,⁴² 주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인다. 시편 제3권의 질문(시 89:46)에서도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라는 질문은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가 시편 91편에서는 긍정적인 용례로 전환된다. 91:1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쉴테르)에 거주하며’는 위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편 1-3권에서 다윗 언약의 의문에 대한 제4권의 대답은 ‘쉴테르’로 시작된다. 또 다른 제4권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91:2)’가 될 수 있다.⁴³ 시편 편집자는 90편의 ‘모세’ 표제와 다른 용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가 모세를 떠올리기를 기대했다.

(2) 깃, 날개(에브라/אֵבְרָא)

시편 91:4의 ‘에브라’는 구약에서 신명기(신 32:11)에 1회, 욥기 1회(욥 39:13), 그리고 시편(시 68:14, 91:4)에서 2회 등장한다. 이는 출애

42 신명기 7:20; 13:7; 27:15, 24; 28:57; 29:28, 31:17, 18*2; 32:20

43 Nancy,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Psalms*, 845.

굽 모티프와 연관되어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용어이다. 신명기 32:11은 모세의 노래에 포함되는 구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훈련한 방법을 나타낸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신 32:11)’의 묘사를 통해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할 때 새끼를 다루듯 여호와와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고 보호하기를 반복한다. 출애굽기 19:4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였는지 기억하라고 하며 독수리와 자신을 연결한다.⁴⁴

궁켈은 보호가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고자 하였고, 대표적으로 시편 89:18과 91:4는 같은 장르로 축복과 저주의 구절로 구분한다.⁴⁵ 시편 내 ‘깃, 날개’와 관련된 유일한 두 구절(시 68:14, 91:4)은 주로 보호에 관련된 구절에 해당한다. 시편 89:18의 보호는 허무한 질문들(시 89:46)과 함께 침묵하고 있는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시편 91:4의 독수리의 깃과 같은 여호와의 ‘보호’는 광야의 기간을 상기시키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도와주었던 여호와를 떠올리도록 한다. 모세에 대한 상기는 광야와 바벨론을 넘어서는 영역에서도 능력을 가진 야웨의 이미지를 부른다. 결국, 여호와와는 다시 한번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고토로 돌아가게 할 희망이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궁극의 왕으로 그려진다.

44 출애굽기 19:4에서 ‘날개(카나프/קַנָּף)’로 나타난다. 시편 91:4에서 독수리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깃(에브라/אֵבֶרָה)’과 ‘날개(카나프/קַנָּף)’를 사용한다.

45 Gunkel, Hermann., & Begrich, J., *Introduction to Psalms : the genres of the religious lyric of Israel*, trans. James D. Nogalski(Georgia : Mercer University Press, 1998), 229.

(3) 장막(오헬/אהל)

시편 91:10의 ‘오헬’은 9절의 ‘지존자(엘론/יְיָ אֱלֹהֵינוּ)’ 및 ‘여호와(יהוה)’와 연관된다.⁴⁶ 10절에서 시편의 화자는 화가 미치지 못하는 장막에 거한다고 말하였고, 그 이유는 9절에서 ‘지존자’가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이기 때문이라고 노래한다. 11절에서는 그 보호의 범위는 성소를 넘어선 모든 길로 확장되어 나타난다.⁴⁷ 11절은 출애굽 사건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넘어선 여호와와의 역사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지성소와 성소로 제한한 다윗 왕조의 시대보다 더 넓은 광야에서 모든 가는 길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내하고 보호한 시기가 이 구절에서는 더 잘 어울린다. 따라서, 장막은 모세와 관련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모세는 출애굽 시에 진 밖에 장막을 치고 그곳을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출 33:7).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에 언약궤는 회막(오헬) 안에 보관되었다(출 40:21). 이러한 이미지들은 모세에 관한 기억과 관련된다. 또한, ‘오헬’은 모세 오경에 총 194회(창세기 21회, 출애굽기 54회, 레위기 42회, 민수기 70회, 신명기 7회)로 빈도수가 높으므로 모세와 관련이 높다.⁴⁸

46 신명 ‘지존자(יְיָ אֱלֹהֵינוּ)’은 족장시대(창 14:18-20)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근동의 보편적 신명이고, 여호와(יהוה)는 모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두 신명의 동시 사용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신학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변경욱, “호세아서 내의 야곱 전승과 모세 전승 함류에 관한 연구: 호세아 12장에 나타난 신명의 사용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 no.4 (2024), 150-153.

47 H. J. Kraus, *Psalms 60-150 Continental Commentaries*, trans. Hilton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93), 224.

48 그러나, 이 용어는 시편에 18회 나타나며 다윗과 관련되기도 하였다. 다윗의 시에서도 여러 번 등장한다(시 15:1, 19:4, 27:5, 27:6, 52:5, 61:4 etc). 이사야는 다윗의 장막(오헬)에 진정한 왕위가 설 것을 예언한다(사 16:5). ‘장막(오헬)’을 다윗 내러티브와 완전히 단절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이사야서의 모압에 대한 신탁(15-16장)에서 다윗 가문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이 나올 것임을 예언하는 이유는 룯의 고향과 관련된 것이라고 파악한다(룯 1:4). 결국, 시편 편집자 의도의 바탕에는 표제, 주변 어휘, 맥락, 독자

(4) 뱀(탄닌/תנין)

시편 91:13의 ‘탄닌’에 관련된 구약 성경의 구절은 출애굽기 3회(출 7:9, 7:10, 7:12), 신명기 1회(신 32:33)로 모세와 관련된 것이 더 많아 보인다. 아론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고 애굽의 마술사가 만든 뱀을 삼켰다(출 7:12).

고대 근동에서 위대한 신의 자격은 악한 대상을 처부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여부였다.⁴⁹ 13절에서 ‘네가’의 존재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갖는 것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출애굽의 경험의 핵심적인 모티프는 갈대바다로 드러나는 악한 존재들에 대해 약화가 승리했다는 것이다.⁵⁰ 91편에서 물에 대한 모티프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13절에서 대적으로 나타나는 독사(פעטן), 뱀(탄닌)의 이미지는 고대 근동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물의 악한 신과 관계되고, 모세는 그러한 탄닌이 사는 홍해를 건너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13절에서 ‘누르리르다’ 동사 ‘라마쓰(למַטֵּא)’ 역시 여호와와 진노로 밟는 것을 주로 나타낸다(사 41:25, 사 63:3). 13절에서의 주어 ‘네가’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라고 한다. 사자로부터의 보호는 출애굽 때 광야를 떠돌리기에 91편을 모세의 시로 보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⁵¹ 호세아서에서 여호와와 광야의 기억을 잇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사자가 될 것이라고 비유된다(호 13:5-7). ‘밟

의 기억 등이 종합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다.

49 Kraus, *Psalms 60-150 Continental Commentaries*, 224.

50 우가릿 텍스트에서 Ym(얌), Mr(모트)와 더불어서 Ltn(리탄)은 두려운 물인 바다에 사는 뱀으로 이해되는 존재이다. 이외에 Tnn(탄닌)도 우가릿의 악의 신중의 하나이며 나하르(강)에 사는 존재로 그려진다. 모트를 제외한 얌, 리탄, 탄닌은 모두 물과 관련된 악신이다. 유윤중, “우가릿 신화에 나타난 신들간의 전투와 구약성서의 활용,”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31(1) (2004), 77-98.

51 David C. Mitchell, *The Message of the Psalter*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77.

는다(라마쓰)’는 말굽과 어울리기에(겔 26:11) 앞선 홍해의 ‘탄닌’과 말 발굽의 ‘밟는(라마쓰)’가 함께 사용되면 출애굽 모티프는 더욱 선명해진다.

2) 다윗의 관점에서

시편 91편에서 ‘피난처(마흐쎬/מַחֲסֵה)’, ‘요새(메추다/מְצודה)’, ‘방패(쩨나/צִנָּה)’, ‘화살(헤쯔/חֵץ)’, ‘거처(마온/מְעוֹן)’ 용어들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다윗을 떠오르게 한다. 이 용어들은 구약 내에서 다윗 모티프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시편과 사무엘서에서 주로 발견된다. 특히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찬양하는 사무엘하 22장에서는 91편과 공통되는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여 관련성을 높인다. 사무엘하 22:2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에서 ‘요새(메추다)’, ‘건지시는(팔라뜨)’가 91편과 동일하고, 22:3에서는 ‘피할(하싸)’, ‘구원(야샤)’가 겹친다. 공포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내용도 반복된다(삼하 22:5-19).

(1) 피난처(마흐쎬/מַחֲסֵה)

시편 91:2의 ‘피난처(마흐쎬/מַחֲסֵה)’는 다윗과 주로 관련된 단어이다. ‘마흐쎬’는 시편 전체에서 총 12회 등장하고,⁵² 시편 91:2과 91:9의 ‘마흐쎬’는 다윗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파악된다.

명사형 피난처(마흐쎬/מַחֲסֵה)의 동사형은 ‘피하다(하싸/חָסָה)’로 같은 어근을 지닌다.⁵³ 동사인 ‘피하다(하싸/חָסָה)’로 확장하면 더 많은

52 ‘마흐쎬’는 91편(91:2과 91:9) 외의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나온다. 시 14:6, 46:2, 61:4, 62:8, 62:9, 71:7, 73:28, 94:22, 104:18, 142:8 [MT]

53 어근 ‘하싸’의 기원에 대해서 아카드어, 우가릿어 등의 기원을 추측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Andrew E. Hill, “חָסָה” eds. Willem A. VanGemeren, *New International*

구절(신 32:37; 수 19:29; 사 9:15; 룻 2:12; 삼하 22:3, 22:31; 역대상 16:38, 26:10, 26:11, 26:16 etc)을 확인한다.⁵⁴ ‘피하다(하싸/פִּיחַד)’ 동사는 시편 5권에서 총 4회(118:8, 9; 141:8; 144:2) 등장한다.⁵⁵

91편에는 ‘마호쎄’가 2회(91:2, 91:9) 나타난다. 이 표현은 여호와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영역을 나타내는 이름이다.⁵⁶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가 여호와임을 여러번 노래하였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피하여 구원받은 때 ‘내가 피할(하싸)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임을 고백한다(삼하 22:3).

(2) 요새(메쭈다/מְצוּדָה)

시편 91:2의 ‘메쭈다’는 사무엘서에서 다윗 내리티브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이다(삼상 22:4,5; 24:22; 삼하 5:7,9,17; 22:2; 23:14).⁵⁷ 대표적인 장면으로 사무엘하 5:7 ‘다윗이 시온 산성(메쭈다)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가 있고 역대기에서도 다윗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대하 11:5,16). 또한, 다윗 성 중 요새 부분을 ‘메짜드/מְצָדָה’라고 따로 불렀다(대상 11:7). ‘메쭈다’는 탈굼역에서도 요새의 의미로 그대로 사용되었다.⁵⁸ 이는 히브리어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2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Publishing House, 1997), 218.

- 54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 각 1회, 사무엘서에서 2회, 역대상 4회, 시편에서 24회, 잠언에서 2회, 이사야에서 3회 나타난다. 모세오경에서는 신명기 32:37에서 ‘피하다(하싸/פִּיחַד)’가 나타나고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기에 빈도수로 보면 이 용어는 다윗과 보다 관련되었다고 본다.
- 55 이 중 141, 144편은 MT, LXX, 탈굼 성경 모두에서 다윗의 시 표제를 포함한다.
- 56 Kraus, *Psalms 60 - 150 Continental Commentaries*, 222.
- 57 구약에서 ‘메쭈다/מְצוּדָה’는 19회, ‘메차드/מְצָדָה’는 12회 나타난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모압(렘 48:41)과 바벨론(렘 51:30)의 요새와 관련하여도 사용된다.
- 58 A. H. Konkel, “מְצוּדָה,” eds. Willem A. VanGemere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2*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PublishingHouse, 1997), 1069.

어휘임을 나타낸다.⁵⁹

‘매쭈다’는 시편에서 총 7회(시 18:3, 31:3,4, 66:11, 71:3, 91:2, 144:2 [MT]) 나타난다. MT, LXX, 탈굼 성경에서 18, 31, 144편은 ‘다윗의 시’ 표제를 포함한다. ‘요새’는 1-3권에서 5회, 4권에서 1회, 5권에서 1회로 비교적 폭넓게 등장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다윗 내러티브와 관련하여 시편 91편을 다윗의 시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3) 방패(쥬나/קָשֶׁת)

시편 91:4의 ‘쥬나’는 다윗과 관련된 용어로 분류해야 한다.⁶⁰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갖춘 무기인 칼과 방패에 압도당한다. 다른 이가 골리앗의 방패를 들고 나와서 그를 보조한다(삼상 17:7). ‘쥬나’는 용사의 몸 전체를 화살로부터도 보호하도록 고안된 큰 방패였다.⁶¹ 그러나, 시편에 등장하는 방패는 다윗 왕조를 위해 사용되며, 사람이 아닌 여호와가 그들의 방패임을 드러낸다(시 5:12; 35:2). 그 외에 영역에서도 ‘쥬나’는 사용된다.⁶²

시편에서 사용되는 방패는 주로 다윗의 시에 나타난다(시 5:12,

59 아람어 성경 탈굼이 단순한 번역이 아닌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이중언어 사용자를 위한 번역-주석서라는 주장이 제기됨을 볼 때, 탈굼에서 나타나는 히브리어는 신학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 Michael B. Shepherd, “Targums As Guides to Hebrew Syntax,” *Themelios* 57. 1. (2022), 50.

60 이 외에 시 5:12; 35:2; 삼상 17:7; 왕상 10:16; 대하 9:15, 11:11-12, 25:5에서 나타난다.

61 Tremper Longman, “קָשֶׁת” eds. Willem A. VanGemere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3*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PublishingHouse, 1997), 819-820.

62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 이백개를 만들고(왕상 10:16, 대하 9:15), 르호보암은 성읍을 방비하기 위해 각 성읍에 방패를 두었다(대하 11:11-12). 아마샤는 전쟁에 나갈 자격있는 남자가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자로 보았다(대하 25:5).

35:2).⁶³ 다윗이 언급하는 방패는 여호와와의 보호를 상징하며 시편 91:4의 방패 또한 여호와와의 보호와 피난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방패(꺄나)는 다윗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꺄나'의 보호는 다윗 언약의 무조건적인 약속의 개념과도 연관이 있다.

(4) 화살(헤쯔/꺄)꺄)

시편 91:5의 '헤쯔'는 다윗이 블레셋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 다윗의 노래에서 나온다.⁶⁴ 다윗은 여호와가 쏜 화살이 블레셋을 물리친 무기라고 고백하며 공을 여호와에게 돌린다(삼하 22:15).

시편 내에서 '헤쯔'는 '다윗의 시'에서 주로 사용된다.⁶⁵ 그 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시 120:4), 솔로몬이 포함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시 127:4), 고라의 시(시 45:5)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화살(헤쯔)은 다윗을 생각나게 한다.⁶⁶

(5) 거처(마온/꺄)꺄)

'마온'은 동물(사자)의 굴이나 은신처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시편 91:9의 '마온'은 다윗의 시에서 주로 나오며, 여호와와의 거처

63 시편 5, 35장은 MT, LXX, 탈굼 모두 '다윗의 시' 표제를 포함한다.

64 이 외에 신 32:23, 왕하 13:14, 42; 시 7:13, 11:2, 18:14, 38:2, 45:5, 57:4, 58:7, 64:3, 64:7, 127:4, 144:6에서 나타난다.

65 시편 7:13, 11:2, 18:14, 38:2, 45:5, 57:4, 58:7, 64:3, 64:7, 77:17, 120:4, 127:4, 144:6

66 한편, 화살(헤쯔)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오며(신 32:23, 42), 다른 성경에서는 구원과 관련되기도 한다. 엘리사와 요시아 사건에서 요아스의 화살은 여호와 구원의 화살이다. 열왕기에서 엘리사는 요시아 왕이 죽어갈 때 화살(헤쯔)을 들고 멀리 쏠 것을 요구한다(왕하 13:14). 이어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아람에게서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예언한다(왕하 13:17).

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시 26:8, 68:5).⁶⁷ 시편 71:3에도 ‘마온’이 사용된다. MT 71편에는 표제가 없으나 LXX에는 있고, 앞의 70편은 ‘다윗의 시’ 표제가 있기에 다윗의 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יְיָ)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신 26:15)’는 신명기에서 유일하게 ‘마온’을 사용하여 시편 91:9와 관계된다. ‘마온’은 시편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יְיָ)가 되셨나이다’의 모세(시 90:1)와 ‘지존자를 너의 거처(יְיָ)로 삼았으므로’의 다윗(시 91:9)의 연결어가 되기도 한다.⁶⁸

3) 모세와 다윗의 상호 조화의 관점에서

성경 안에서의 다양한 용례를 생각해본다면, 어떤 어휘가 특정한 모티프만을 나타낸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단어를 통해서 모세나 다윗 모티프와 관련된 사건들이 연상될 때, 이러한 열린 가능성들 때문에 해석이 제한될 수도 없다. 91편의 경우, 표제의 가능성 안에서 모세(MT의 앞선 90편) 모티프이거나 다윗(LXX) 모티프로 한정하여 접근할 수 있다. 선별되지 않은 단어들 안에서도 많은 해석적 여지가 있으나 시편 안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운문적 특성(평행법)과 구약 본문의 독특한 특성인 카이아즘 구조를 통해서 관련 단어를 선별하였다. 야누스의 평행대구는 중심축에서 두 가지 양가적 의미를 연결하는 중심축 어휘(pivotal word)가 있다. 본고에서는 확대된 의미론적 야누스의 평행대구는 위의 선별된 단어들을 바탕으로 P(pivotal word) 구절, M(Moses) 구

67 이 외에 민 32:38, 신 26:15가 있다.

68 시편 71:3에서도 숨을 곳을 ‘마온’으로 나타낸다.

절, D(David) 구절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양가적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많이 포함할 수록 P구절이 많아지며 확대된 의미론적 야누스의 평행대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1편 내에 중심축 P구절(91:2, 4, 9, 10)은 양가적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들이 포함되고, 나머지 M구절(91:13), D구절(91:5)은 각각 모세 모티프와 다윗 모티프를 그려내는 역할을 한다.

P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91:2)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M/D)요 나의 요새(D)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 (시 91:4) 그가 너를 그의 깃(M/D)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 (시 91:9)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M/D)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M/D)로 삼았으므로 - (시 91: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M/D)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M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91:13)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M)을 발로 누르리로다
D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91:5)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D)과

시편 편집자는 포로기를 거치면서 다윗 왕조의 대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파괴된 성전 앞에서 다윗과 모세를 모두 필요로 했다. 무조건적인 보호의 약속을 받았던 다윗 왕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성전 재건을 해야만 하는 모순 속에서, 과거 강력한 야웨에 의한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다윗과 그 왕조가 가졌던 역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모세의 토라와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확대된다. 이제 야웨는 이스라엘에게 뿐 아니라 이방 세계도 토라의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시 94:2; 99:1). 따라서, 유대 민족은 모세와 토라를 다시 소환한다. 본고는 시편 91편에 대한 제3의 대안적 해석 방법론 도입을 통해 모세

의 야웨와 다윗 왕조가 상호보완적인 점을 주장한다.

(1) 제3의 해석 방법론: 야누스 평행 대구

본고는 시편 편집자가 공동체의 기억을 바탕으로, 91편이 모세와 다윗의 관점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야누스 평행대구’의 원리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편 90-91편, 91-92편은 의도적으로 병렬된 구조로 볼 수 있다. 시편 91편은 앞선 90편의 ‘모세’의 시(90편)와 하나의 의미 단락을 구성할 수 있고, 동시에 91편은 ‘다윗’의 시로 해석되어 뒤의 92편과의 연결성을 지닐 수 있다. 시편 90-92편에서 확장된 야누스 평행대구의 원리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모티프(모세와 다윗)가 교차로 직조되게 나타나서 문학적 역동성을 만든다. 이는 두 주제의 강점을 모두 포섭하려는 편집자의 의도를 반영한다.

(2) 야웨 멜렉 시의 도입인 90-92편

시편 90-92를 하나의 단위로 읽으면서 90편은 출애굽을 위한 기도로서 입장 예식문, 91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확신의 시, 92편은 해방에 대한 감사시로 보기도 한다.⁶⁹ 시편 92편은 표제에도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⁷⁰과 관련된 찬양시⁷¹로 분류된다. 그러나 91편의 역할을 이중적으로 해석할 때 거시적(macro)으로 뒤에 이어지는 다윗 모티프(110, 132, 144편)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90-92

69 Rogerson McKay and J. W. McKay, *Psalms 51-1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203-204.

70 Sigmund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2-3.

71 Claus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105.

편 단위의 중심인 91편은 앞의 90편과는 모세 주제와 연결되고 뒤의 92편과는 다윗 주제와 연결되는 야누스의 얼굴이다. 모세(90-91편)와 다윗(91-92편) 시로 통합된 90-92편은 이어지는 93-100편의 야웨 멜렉 시편(여호와가 다스리신다)의 서론 역할을 한다.⁷²

(3) 90-91편

‘모세의 시’인 90편은 91편까지 ‘모세’ 모티프로 연결되어 확장된 야누스의 평행대구의 앞을 형성한다. 90편은 제4권의 시작으로 유일하게 ‘모세’가 표제인 시편으로 ‘모세의 시’로 본다.⁷³ 이 표제하에서 홍수 이미지(시 90:5), 진노 이미지(시 90:7, 9, 11) 등은 모세 모티프(출 15:7-8, 10-16)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90편과 91편을 이어주는 단서로 ‘거처(마온/מִצֵּדָה)’는 시편 90:1과 91:9에 나타나서 연결어(catch word)로 기능한다. 90-91편은 의미상 동의적 연결어를 통해서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다른 표현들은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여 연결된다. 91:1의 거주하다(야샤브/יָשָׁב)는 90:1의 거처(마온)와 의미적으로 유사하다. 90편과 91편에서 ‘주(하나님)가 거처가 된다’는 개념이 반복되고 있으며 91편에서는 보다 확장되어 피난처와 요새(시 91:2), 피난처와 거처(시 91:9)로 안전이라는 핵심 내용을 구성한다. 구약 성경에서 손과 관련된 표현은 권위와 권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시편 90:17에서는 손을 야드(יָד)로 나타내고 91:12은 권세의 용례(삿 6:13; 렘 12:7, 왕

72 문은미는 시편 4권 속 90-92편이 단어와 주제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보았고 서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은미, “시편의 구성적 접근을 통한 시편 제4권의 이해,” *Canon&Culture* 4.2 (2009), 179-183.

73 MT, 탈굼, LXX 모두 90편에 표제 ‘모세의 시’를 포함한다. 콰란사본에는 90편이 남아 있지 않다; 많은 학자들은 90편을 모세의 시로 읽고자 하였다.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215; Kraus는 90편을 모세와 관련된 것이며, 모세의 권위를 시편 편집자들은 차용해 온 것으로 본다. Kraus, *Psalms 60-150 Continental Commentaries*, 215.

하 16:7)를 나타낼 수 있는 카프(קַף)를 사용한다.

시편 90편은 ‘모세’와 관련하여 신명기 32편의 내용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⁷⁴ 신명기 32-33장은 시편 91편에서도 연결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공유한다. 해당 표현은 피난처(마호세/מַחֲסֵה)(시 91:2; 신 32:37), 깃, 날개(에브라/אֵבְרָא)(시 91:4; 신 32:11), 장막(오헬/אוֹהֶל)(시 91:10; 출 33:7), 뱀(탄닌/תַּנִּין)(시 91:13; 신 32:33)이다.

거시적인 면에서 시편 90편은 제3권의 마지막 89편에서 다윗 언약의 실패처럼 보이는 내용에 대해 답변하 기능을 한다고 해석한다.⁷⁵ 그러나, 4-5권에서도 여전히 다윗 모티프는 지속되기에 이는 다윗 언약의 실패라기보다는 일시적 침묵으로 보아야 한다. 다윗 왕국 이전의 과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아닌 모세(사내산) 언약과 토라가 나오게 된다.⁷⁶ 시편 편집자는 1-3권의 다윗 언약의 실패에 대한 해답으로 90편의 표제를 통해 청자가 우선 모세에 주목하길 원하는 것이다.⁷⁷

(4) 91-92편

91-92편은 ‘다윗’ 모티프로 연결되어 확장된 야누스의 평행대구

74 deClaisé-Walford,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82-85.

75 N. L. deClaisé-Walford,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82.

76 deClaisé-Walford,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87-88.

77 시편 1편은 토라의 시이고, 2편은 야웨 왕조 시편이다(deClaisé-Walford,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82). 크라우스(H. J. Kraus)는 시편 2편은 1편과 하나였고 그 한 단위는 시편의 서문으로 여겨졌다고 보기에 시편 1-2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표제로 기능한다고 본다(H. J. Kraus, *Psalms 1-59 Continental Commentaries*, trans. Hilton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93), 125; deClaisé-Walford,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41). 본고는 시편 1편(토라), 2편(왕)의 관계가 90-91편의 모세 모티프-강력한 야웨의 통치와 91-92편의 다윗-성전에서의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나타나며, 91편이 야누스의 얼굴처럼 이중적으로 앞의 90편과 뒤의 92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의 뒤를 구성한다. 지존자(엘론/יְהוָה)는 시편 91:1과 92:8에 동시에 등장하는 연결어(catch word)이다.⁷⁸ 내용적인 면에서, 시편 91:8의 ‘악인에 대한 보응’은 92편(시 92:7, 9, 11)에서 확장되어 표현된다. 특히, 시편 91:8과 92:11은 시각적인 보복이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시편 91:14의 ‘이름(שֵׁם/שֵׁם)’은 92:2의 ‘당신의 이름(שִׁירְכָּא/שִׁירְכָּא)’과 대응함으로 92편 전체가 91:14를 충족하여 주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리고 있다. 그 외에 시편 92:15의 나의 바위(חֹרֶב/חֹרֶב)는 91:1의 피난처(מַחְשֵׁה/מַחְשֵׁה), 요새(מְצוּדָה/מְצוּדָה) 등이 나타내는 보호의 소재와 서로 연관된다. 91편의 보호 주제는 92편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대조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는 시편 91-92편에서 다윗 모티프의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윗의 찬양이 나오는 사무엘하 7장과 시편 91-92편은 ‘영원(삼하 7:13, 16; 시 91:16; 92:7, 8, 14-15),’과 ‘안전(삼하 7:13, 16; 시 91:2-13, 15; 시 92:13-15)’이라는 공통 주제로 관련된다. 이것의 구체화된 모습은 ‘성전’과 ‘안식일’로, 구약 성경은 공간(성전)과 시간(안식일)이 모두 보장되는 개념으로 영원한 안전을 그려낸다.⁷⁹ 공간에 관하여는,⁸⁰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와 관련된 ‘집(삼하 7:5, 13)’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시편 91편은 ‘전능자의 그늘(91:1),’ ‘피난처, 요새(91:2),’ ‘지존자의 거처(91:9)’로 나타나며, 92편에서는 ‘여호와의 집(92:13)’으로 연결된다.⁸¹

78 시편 89:28, 91:1, 91:9, 92:2에서 ‘높으신 하나님’의 개념이 반복된다.

79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제안하지만 여호와는 거절하며 그 자식이 건축할 것이라 한다(삼하 7:2-12). 이러한 성전에 대한 내용 이후 다윗 집안에 대한 영원한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다윗 언약(삼하 7:14-17)이 등장하기에 ‘성전’과 ‘다윗’과의 관계는 불가분이라 할 수 있다.

80 시편 90:1에서 이스라엘의 대대로 의지해온 거처는 여호와임을 밝힌다. 베스트만은 90편이 공동체 탄원시로 하나님의 과거의 도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Claus Westermann, *The Psalms: Structure, Content and Message*, 120.

81 안식일 시편(92편)은 주로 성전을 배경으로 한다. Jonathan L. Friedmann, “Psalm 92,

다윗 왕조와 성전의 운명은 함께 했다. 여호와가 다윗 왕조를 세울 때 (삼하 7:13)에도, 버릴 때 (렘 39:2-7; 왕하 25:1-7, 애 2:7)에도 성전과 다윗의 후손은 함께 등장했다. 특히 92편은 안식일을 통해 ‘시간’의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91편과 연결되어 확장된 야누스의 평행대구의 뒤(91-92편)를 이룬다. 92편은 성전을 배경으로(시 92:13) 공간이 제시되지만, 동시에 시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영원한 안전의 때를 소망한다. ‘아침마다(시 92:3)’는 ‘밤마다(시 92:3)’와 전치사 ‘בְּ’를 공유하여 각 ‘아침(보케르/בֹּקֶר)’와 ‘저녁(라일라/לַיְלָה)’으로 대구를 이루면서 영원한 안식과 반복의 의미를 만든다. 또한 시편 92:8(MT 92:9)은 ‘영원토록 지존(마론 레올람 야웨/הַיְהוָה לְעַלְמֵי דָּמְרוּם)’한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리고 92:13의 ‘하나님의 뜰(하제르/הַצֵּדֶר)’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92:14에서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의 표현도 오랜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윗은 안식일(레 24:8)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으나 용인된 사람(삼상 21:1-6; 레 24:9)으로 그려지며 관련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91-92편은 다윗 왕조와 관련되어 성전을 소환하고, 93-100편은 다윗의 부활이 아닌 여호와가 왕의 보좌에 오도록 준비한다(시 93:1; 97:1-2; 99:1-2; 100:4). 91-92편 다윗의 시는 제4-5권 안에서 다른 제왕시들(시편 110, 132, 144편)과도 연결되는 시작점이다.

(5) 90-91편, 91-92편의 신학적 의도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은 침묵하기(시 89:49)에 폐기되고 90편의 모세만을 소환하기 원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문학적인 측면에서 모세와 다윗은 91편 안에서 공존하고 있고, 신학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성

Shabbat, and the Temple,” *Jewish Bible Quarterly Dor le Dor* 48,4 (2020), 248.

격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91편은 시편 4권의 시작부에 위치하여 의도적으로 양방향으로 동시에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위치하고, 해석자에게는 개방된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시편 제1, 2, 3권에서 이어지는 큰 흐름에서 다윗 왕조의 언약은 실패한 듯 보이지만, 다시 91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흔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언약에 대한 여전한 기대로 읽을 수 있다. 포로 후기 공동체 입장에서조차 다윗 왕조는 이어져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 왕가에게 여호와가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보장하는 ‘보좌’도 필요하기에 다윗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여전히 다윗은 빈도 면에서 제4, 5권에서 기능하고 있다(시 101:1, 132:11). 한편, 시편 편집자는 제4, 5권에서 모세의 ‘토라’도 여전히 강조(시 119:1, 147:19)하고 있다.

따라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진 다윗 왕조에 대한 보완으로 모세를 다시 소환했다. 다윗과 모세가 통합함으로써 출애굽 역사를 재연할 무너지지 않고 강력한 ‘야웨가 왕’인 완전한 신정 왕권 국가가 나타난다. 모세의 광야 시대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공동 운명체의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며 이방 세계도 그의 아래에 두었다. 포로 후기에도 모세의 야웨는 악인을 벌하고(시 94:1-10), 이스라엘의 대적을 없애는 분으로 여전히 기대된다(시 97:3). 다윗 언약은 여호와의 통치권을 다윗 왕조에게 이양했지만, 시편 90-91편에서 모세의 소환은 여호와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출애굽 때의 강력한 야웨가 다시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멸절되지 않았고 제2의 출애굽을 통해 다시 여호와가 왕인 이스라엘을 재건할 희망을 가졌다.⁸² 왕의 중요한 의무가 보호라는 면에서 진

82 언약의 측면에서, 조건적인 모세 언약의 한계는 다윗 왕조에게 베풀어진 여호와의 배타

정으로 안전한 시대는 야웨가 왕인 시대이다(시 92:13; 93:1, 5; 97:1-2; 99:1-2; 100:3-4).⁸³ 이는 ‘모세의 야웨’를 통해서 그려지며 역사적 다윗 왕조를 보완하는 요소가 된다. 이들이 재건하길 희망하는 왕조는 다윗 언약에서처럼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모세의 야웨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에 의해서 이방 국가를 다스리고 영원히 보존될 나라이다.

4. 나가는 말

시편의 편집자(psalter)는 의도적으로 90-91편을 순서대로 배열하였고, 90편은 ‘모세의 시’ 표제를 붙이고, 91편은 표제를 누락하였다. 표제가 없는 91편은 앞선 90편에 이어지는 모세의 시로 읽을 수도 있고, 92편 및 이어지는 제왕시들(110, 132, 144편)과 맥락을 형성하여 다윗의 시로도 읽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확대된 야누스의 평행대구 방법론을 통한 해석으로 시편 91편 장르의 불확실성과 표제 누락의 문제를 해소하여 91편의 해석 가능성을 연다. 이는 시편 편집자가 문학적으로는 모세의 시와 다윗의 시가 서로 공존하도록 하고, 신학적으로는 모세과 다윗이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시편 3권 끝의 구원에 대한 응답의 부재(시 89:46, 49)에 대해 신학적 제안을 내놓아야만 했을 때, 그 답은 제4권의 시작 90편의 강력한 야웨의 ‘모세’뿐 아니라 안정된 왕조

적인 선택과 사랑이라는 다윗 언약을 통해 보완되어 폐기되지 않을 약속을 보장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91-92를 통해서 다윗을 소환하여 다윗 언약의 희망의 메시지 ‘징계는 하겠으나, 멸망시키지는 않겠다(삼하 7:14-16)’를 자신들이 재건할 왕국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83 Thomas Edward McComiskey, *The Minor Prophets: An Exege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vol 3* (Grand Rapids, Mich : Baker Book House, 1992), 957.

의 전형인 ‘다윗’의 소환이었다. 포로기-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편 91편의 야누스의 기능을 통해 민족의 두 영웅이 대변하는 양면의 통합을 통해 기존의 신학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누가복음 4:10-11에 나타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11, 12라는 점은 91편이 유대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추측하게 한다.⁸⁴ 본고가 제안하는 확장된 야누스의 평행 대구의 원리는 문학적 특성을 지닌 시편에서 더 많이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정주. “시편 132편과 다윗 언약.” 『개신논집』 6 (2006), 63-91.
-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83-110.
- 문은미. “시편의 구성적 접근을 통한 시편 제4권의 이해.” *Canon&Culture* 4.2 (2009), 177-209.
- 변경욱. “호세아서 내의 야곱 전승과 모세 전승 합류에 관한 연구: 호세아 12장에 나타난 신명의 사용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 no.4 (2024), 141-176.
-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구약논단』 16.2 (2010), 92-115.
- 유윤중. “사해사본 11QPsa와 시편의 정경화.” 『신학논단』 43 (2006), 235-248.
- _____. 『구약주해』 1권 (용인: 킹덤박스, 2022).
- _____. “우가릿 신화에 나타난 신들간의 전투와 구약성서의 활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1) (2004), 77-98.
- _____.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어의 문학적 역동성과 한글 번역.” 『Canon & Culture』 12.2 (2018), 77-104.
- _____. “이세의 아들인가? 사울의 아들인가?: 사울과 다윗의 갈등 내러티브 (삼상 16-26장)에서 본 사무엘상 17장 55-58절.” 『구약논단』 29, no. 1 (2023),

84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들은 91편이 메시아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했다. John Calvin, 『성경주석』, 81.

152-183.

- 이사야. “사울-다윗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영과 영성.”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16 (2010), 226-249.
- 방정열. “시편 표제어 유무(有無)에 대한 정경적 해석의 가능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11-37.
- Alter, Robert.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0.
- _____. *The book of Psalm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London: WW Norton & Company, 2007.
- Beckwith, R. T. “The Early History of the Psalter.” *TB* 46, 1995. 1-27.
- Berry, George R. “The Titles of the Psalm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33 (3). 1914. 198-200.
- Brown, Jennifer E. and Joanna Collicutt., “Psalms 90, 91 and 92 as a means of coping with trauma and adversity.”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25.3 (2022). 276-287.
- Calvin, John. 『성경주석』 vol.5, 신윤복 외 2 감수. 서울: 성서원. 1999.
- Childs, B. 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SS* 16, 1971. 137-150.
- Dahood, Mitchell. *The anchor bible Psalms II*. New York: Dell Publishing Group, 1968.
- deClaisse-Walford, N. L.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 Friedmann, Jonathan L. “Psalm 92, Shabbat, and the Temple,” *Jewish Bible Quarterly Dor le Dor* 48.4. 2020, 245-252.
- Gordon, C. H. “New Directions.” *The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of Papyrologists* 15(1978). 59.
- Gunkel, Hermann & Begrich, J. *Introduction to Psalms: the genres of the religious lyric of Israel*, trans. James D. Nogalski.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8.
- Gunkel, Hermann, Muilenburg, James, and Thomas M Horner. *The Psalms: A Form-Critical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 Hill, Andrew E. “מִזְמוֹרֹת.” eds. Willem A. VanGemere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2.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PublishingHouse. 1997.
- Jenkins, Philip. *He Will Save You from the Deadly Pestilence: The Many Lives of Psalm 9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 Kirkpatrick, A. F. *The Book of Psal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6.
- Kline, Joanna G. *Narrative Analogy in the David Story: Parallels between Genesis 25-50 and 1 Samuel 16-1 Kings 2*. Tübingen: Mohr Siebeck, 2024.
- Kraus, H. J. *Psalms 1-59 Continental Commentaries*. trans. Hilton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93.
- _____. *Psalms 60-150 Continental Commentaries*. trans. Hilton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93.
- Kim, Hyung Jun. "A study of Psalm 90." Th.M.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Africa, 1998.
- Konkel, A. H. "מְנוּחָה," eds. Willem A. VanGemere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2*.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 Longman, Tremper. "מְנוּחָה." eds. Willem A. VanGemere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3*.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 McKay, Rogerson. and McKay, J. W. *Psalms 51-1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Mowinckel, Sigmund.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 Mitchell, David C. *The Message of the Psalter*.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77.
- Miller Jr, Patrick D. *Interpreting the psalm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Nancy, L. D.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Psalm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4. 강대이 역. 『(NICOT)시편』.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Pleins, J. David. *The Psalms: Songs of Tragedy, Hope, and Justi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93.
- Plumer, William S. *Studies in the Book of Psalms: Being a Cri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With Doctrinal and Practical Remarks on the Entire Psalter*. Philadelphia: J.B. Lippincott, 1867.
- Sailhamer, John H.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2.
- Sanders, J. A. "The Qumran Psalms Scroll(11QP^s) Review." In *On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Vol. 56, 1974, 79-100.
- Shepherd, Michael B. "Targums As Guides to Hebrew Syntax." *Themelios* 57. 1. 2022.

49-59.

- Slomovie, E.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itles in the Book of Psalms." *ZAW* 3. 1979. 350-380.
- Tucker, W. Dennis. "Revisiting Psalm 91 in Light of Rainer Albertz's Model of Internal Religious Pluralism." *JBL* 143. 2024. 643-661.
- Vreugdenhil, Gerrit C. "Context and Genre of Psalm 91." *Psalm 91 and Demonic Menace*. Brill, 2020. 175-207.
- _____. *Psalm 91 and Demonic Menace*. Boston: Brill, 2020.
- Weinfeld, Moshe. "בְּרִיית." eds.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Heinz-Josef Fabry, and John T. Willi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2.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4.
- Weiser, Artur. trans. H. Hartwell. *The Psalm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1962. 604-605.
- Westermann, Claus.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Atlanta, Ga.: J. Knox Press. 1981.
- _____. *Claus. The Psalms: Structure, Content and Message*.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0.
- Wilson, G.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81.
- _____. "The Qumran Psalms Scroll reconsidered: analysis of the debate."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7. 4. 1985. 624-642.

검색어

시편 91, 모세, 다윗, 야누스 평행대구

[ABSTRACT]

Psalm 91 as Janus: Moses' or David's Psalm?

Kyung-Wook Byun
Pyeongtaek University

Psalm 91 can be read as 'A Psalm of Moses,' following the preceding Psalm 90, or as 'A Psalm of David,' as in the LXX's title. This paper argues that the psalm editor intended to position Psalm 91, the ambiguous genre of the text, employing the principle of extended Janus parallelism, a literary device that allows for dual interpre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Moses motif, Psalm 91 can be interpreted as a Psalm of Moses, connecting Psalms 90-91. From the perspective of Davidic motif, Psalms 91-92 can be interpreted as Davidic psalms. Psalm 91 functions as a dual application of both Moses and Davidic motifs, suggesting that these two motifs, important to the Israelites, can be interpreted simultaneously and complementarily, rather than exclusively.

key words

Psalm 91, Moses, David, Janus parallelism

투고일 : 2025년 07월 17일

심사일 : 2025년 08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09월 01일

www.kci.go.kr